

KIEP 한중경제 포럼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제04-05호 / 2004년 6월 2일

중국 거시경제조정정책의 배경과 향후 전망

Zhang Shu-guang (張曙光)

中國 天則경제연구소 소장

I. 발표요지

1. 세계 속의 중국경제

□ 중국의 경제규모가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하나 세계경제 성장에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최근 들어 세계경제를 논하는 과정에서 중국경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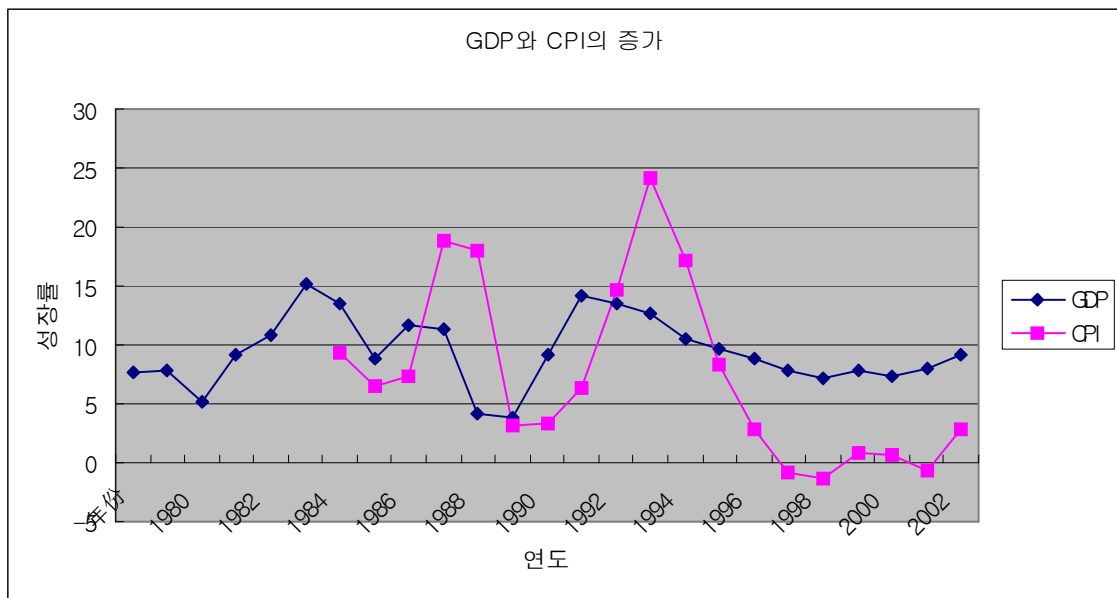
—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이후 지난 2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9.35%, 최근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8.8%를 기록함(그림-1 참조).

○ 200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세계 경제성장률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과 일본을 앞서는 14%에 이르며, 전세계 무역증가율에서도 40%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 KIEP 북경사무소에서는 중국경제 현안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심층 파악하고, 정책 입안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관리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중경제포럼>을 운영, 매월 정기 세미나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에서는 유관부처의 고위관리 및 전문가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며, 한국측에서는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부문 인사, 한국경제단체 및 기업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중국경제의 급성장이 전세계적인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가져와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함.
- o 미국내에서는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미국내 일부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가져왔다는 부정적 평가와 함께 중국의 美국채 구입에 따른 재정적자 완화 등 긍정적 평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
- o 또한, 주변국들의 경제성장, 무역 등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게 증가함.

<그림-1> 개혁·개방이후 중국경제의 성장 추이



2. 최근 경기과열의 성격과 현황

- 과거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성장률과 비교하여 잠재성장률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과열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음.
- 중국이 2003년도에 시현한 경제성장률 9.1%는 과거 25년과 최근 10년간 평균성장률 9.35%와 8.8%를 모두 상회하는 높은 수치임.
- o 2004년 들어서도 GDP 증가율이 1/4분기 9.7%, 2/4분기 11.4%가 예상되고 있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음.

- 2003년 경제성장률(9.1%)을 각 省·市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0%이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省은 4개에 불과한 반면, 9개 省이 10~11% 성장을, 7개 省이 11~12% 성장을, 9개 省이 12~13% 성장을, 그리고 3개 省이 14%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나타남.
- o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중국경제는 현재 부분적인 경기과열현상과 함께 전반적인 경제과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음.

<표-1> 2003년도 省·市·자치구별 경제성장률 분포

지 역	경제성장률	지 역	경제성장률	지 역	경제성장률	지 역	경제성장률
운남	8.6	안휘	9.2	호북	9.3	호남	9.6
감숙	10.1	광서	10.2	귀주	10.2	흑룡강	10.3
북경	10.5	하남	10.5	해남	10.5	신강	10.8
섬서	10.9						
요녕	11.0	길림	11.2	상해	11.3	중경	11.4
북건	11.5	하북	11.6	사천	11.8		
서장	12.0	청해	12.1	닝하	12.2	강서	13.0
산서	13.2	산둥	13.3	강소	13.5	광둥	13.6
절강	14.0	천진	14.5				
내몽고	16.3						

- GDP에서 고정자산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7%, 금년 1/4분기 50% 등을 기록하고 있는바, 이는 원자재 소비 및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생산과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o 또한, 현재 건설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어 전세계 시멘트생산량 (15억톤)의 55%에 해당하는 8억 2,000톤이 중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음.

3. 거시경제정책의 내용과 효과

- 중국은 경제의 고도성장 속에 2004년 1/4분기 2.8%, 4월 3.8%, 5월 4%이상 (예상치) 등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첫째, 소비재물가 상승은 주로 식량가격 인상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현재 식량가격 인상을 놓고 농민소득 제고와 식량가격 인상에 따른 식량안전 및 수입확대 문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음.
- o 현재로서는 농민소득, 농산물 수입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정책이 필요한 상태임.
- o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가격을 단기적으로 90%, 장기적으로 80%를 조정한다면 문제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정부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임.

- 둘째, 주로 수입품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재물가 상승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o 중국은 수입통제효과가 비교적 큰 국가이며, 더욱이 지난해 美달러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급격한 생산비용 증대효과를 초래하였음.
- o 현재로서는 환율문제가 매우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커다란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현재 중국의 통화정책은 주로 인플레이션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바¹⁾, 이미 2003년 7월부터 부동산 대출 억제를 위해 3차에 걸친 은행의 자본준비율 인상 등 긴축정책을 추진해 왔음.

- 현재로서는 중국인민은행의 이러한 조치들이 매우 안정적이고 신중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는바, 특히 제1차(1% 인상)와 제2, 3차(각각 1%씩 인상) 자본준비율 인상으로 인해 각각 1,500억 元과 1,100억 元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남.
- o 일반적으로 자본준비율 인상을 통한 통화량 조절은 전 세계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은 아닌데 비해 중국에서 3차에 걸쳐 이루어진 것은 다른 여타조치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최근 들어 금리 인상과 관련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바, 실제로 중국인민은

1) 필자는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방지,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행은 금리 인상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현실화되지 않고 있음.

- 예금금리를 인상할 경우, 은행의 이익 저하와 투자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고, 대출금리를 인상할 경우, 기업 또는 개인의 대출은 억제될 수 있으나 대출에 따른 이익을 고려한 은행들의 자발적인 대출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o 현재 중국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1.89% 정도인데, 그것도 세금을 제외하면 1.4% 정도에 불과함.
 - o 반면에 대출 이자율은 예금이자율보다 3% 포인트 높은 5.31%임.
- 통화량 증가를 가져온 이유 중 다른 하나는 외환보유고 증가와 관련되어 있는바, 외환보유고 급증에 따라 인민폐 수요도 증가하였기 때문임.
-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03년 말까지 전년대비 1,168억 달러 증가한 4,023억 달러를 기록함.
 - o 또한, 금년 1/4분기 동안 8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는 365억 달러 증가함.
- 현재 인민폐 대비 외환과의 금리 차이는 해외시장 0.96%, 국내시장 1.04%를 보이고 있는바, 만일 인민폐관련 금리를 인상할 경우 동 금리 차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의 통화정책 운용 여지가 매우 좁은 상태임.
 - o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o 현재 美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美달러화 강세, 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금리 인상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바, 만일 美FRB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중국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여지는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로서는 최근 발표된 중국정부의 긴축조치의 효과에 따라 금리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긴축조치의 효과가 확연히 나타날 경우, 금리인상 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본격적인 효과는 금년 하반기에나 시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일부 분야에서는 긴축조치의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바, 금년 1/4분기 한 때 50% 이상을 기록하였던 투자증가율이 최근 들어 42%로 하락하였고 화폐 발행액과 대출액 증가도 둔화되고 있음.
- 다만, 물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이 5% 이하를 기록한다면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조치는 필요 없게 될 것임.

□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통화정책의 운용 여지가 매우 낮고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재정정책을 통한 거시경제 조정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 － 금년 3월 개최된 전인대(全人大)에서도 재정책대정책의 유지를 천명한 바 있어 재정정책의 운용을 통한 거시경제의 조정, 즉 긴축조치 효과를 찾기 위해 노력 중임.
- 국채의 발행 규모를 더욱 감소시켜야 하며, 재정을 통한 프로젝트사업의 개선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일부에서는 투자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 즉 투자항목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세제상의 혜택은 차별적인 조치가 될 수 있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함.

□ 원자재부문의 공급과잉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조치로는 에너지관련 제품, 원자재 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이 필요함.

- － 중국은 이미 2003년도에 2,000~3,000톤 규모의 철강을 수출한 바 있음.

□ 금년 들어 중국정부가 취한 세금관련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2가지가 있음.

- － 첫째, 증치세(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기존의 생산형 부가가치세에서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전환한 것임.
- 현 상황에서 증치세부문에 대한 개혁의 추진 필요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는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최근 조치가 동북 3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함.

-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동북 3성의 전체 증치세 규모는 133억 元에 불과하며, 공제이후 금액도 50여억 元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함.
- － 둘째, 국내외 기업간 법인소득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임.
- 국내외 기업간의 동일한 법인소득세율 적용은 WTO 가입직후 실시되었어야 하나, 그동안 추진이 연기됨으로써 오히려 중국경제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투기성자금의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환율조정 효과 등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인민폐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현재 중국정부는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고 전인대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음.

4. 체제성 과열의 판단 및 대책

- 최근의 경기과열현상과 관련하여 정책성 조치가 아닌 행정적 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 실제로 최근 중국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이 행정적 조치들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의 경기과열이 시장에 의한 과열현상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체제성 과열, 즉 정부의 책임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입증하고 있음.
- － 현재 부동산부문이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나, 실제 공급과 수요는 균형형을 보이고 있음(2003년 부동산부문의 투자증가율 32%, 판매증가율 35%).
- 부동산부문의 과열현상은 주로 토지이용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이익에서 비롯되고 있는바, 특히 개발구 문제가 크게 작용하였음.
- 전국적으로 6,015개의 개발구가 전체 국토면적의 0.36%에 해당하는 35,400 km²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부 縣급 지역에서는 19개 개발구가 2만畝(1畝 = 약 200평)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도시에서는 하나의 區에서 개발구

로 사용하는 토지면적이 해당 區 전체면적의 49%에 달하고 있어 토지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함.

- 현재의 경기과열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일부 조치가 기업의 생산, 판매, 이윤 등을 왜곡시켰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 o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인프라시설을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건설해주기도 하고 일부 기업의 토지이용을 무료 또는 극히 저렴한 사용료만 지불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기업의 무분별한 투자를 초래함.

□ 이처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현재의 경기과열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행정적 조치를 통한 문제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o 최근 들어 정부 관료들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重慶市 천연가스 사건, 北京市 密云的 사건 등과 관련한 정부관리의 처벌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 o 그러나 최근 발생한 江蘇省 鐵本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책임을 물어 민영기업을 강제 폐쇄조치한 사례도 있어 향후 사유재산권 보호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5.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

□ 2004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4분기에 이미 9.7%를 기록했으며, 2/4분기에도 11.4%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4분기 성장률이 높은 이유는 사스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6.7%, 소비증가율 7% 등 2003년 2/4분기 경제활동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 한편, 금년도 거시경제조정정책의 효과는 3/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
- o 따라서, 금년도 경제성장은 ㄩ자형을 시현할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보다 더욱 강경한 긴축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8% 내외를 기록

할 것이나, 현재 수준의 긴축조치가 지속될 경우에는 8% 미만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큼.

- 대규모 농촌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전반적인 도시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농촌지역의 소득이 도시지역 소득만큼 성장한다면 중국의 내수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임.
- o 현재 도시의 1인당 평균소득이 8,000元 정도인데 비해 농촌의 1인당 평균소득은 2,600元에 불과함.
-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여타 국가들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바, 특히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무역외에 내수시장의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o 현재 일부 제조업 제품들의 공급과잉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으나, 이러한 공급과잉문제는 농촌인구의 소득이 급증할 경우 해결될 수 있음.
- o 따라서, 중국경제는 향후 1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에 중국경제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앞으로 다양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음.

- 첫째, 에너지 부족문제로서, 현재 20개 省·市에 대해 제한적인 전력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o 경제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절강성내 기업들이 자체 발전소를 마련하고 있어 최근의 전력부족 현상을 반증하고 있음.
- o 현재의 에너지 부족문제는 수년전부터 전력소모량이 높은 기업들이 대거 등장한 것에 비해 전력생산을 소홀히 했기 때문임.
- 둘째, 현재 40%에 달하는 원유의 수입의존도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것임.

- 최근 원유가격이 배럴당 42달러로 상승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현재와 같은 속도로 중국경제가 성장할 경우 2010년 원유의 수입의존도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유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석유비축, 해외원전개발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원유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경제적인 문제로서, 특히 현재 원유라인의 대부분이 미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미관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셋째, 중국대륙과 대만간의 관계도 중국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바, 兩岸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중국대륙, 대만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임.
- ‘一國兩制’사상이 홍콩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으나, 대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함.
- 넷째, 도-농간 및 개인별 소득격차문제도 심각한 상태임.
- 현재 중국인구의 상위 1%가 총소득의 5% 이상을, 상위 5%가 총소득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소득이 600元に 불과한 농촌인구도 2,800만 명에 이르고 있음.
 -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도시에 비해 일부 농촌지역의 경제는 암울한 상태인바, 현재 토지를 상실한 농촌인구가 5,000만 명 정도이며 그 가운데 토지와 일자리 모두를 잃은 인구가 3,000만 명에 달하고 있음.
- 경제개혁 속도와 비교할 때 정치개혁 속도는 매우 완만한 상태인바, 향후 보다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개혁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 정부정책의 수준 제고 등을 동반한 중국정부 및 공산당의 확고한 개혁조치가 필요한 상태임.

II. 토론 요지

問 : 중앙정부는 경기과열을 해결하기 위해 과잉투자 정비, 대출 정비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그 효과는 의문시 되고 있음. 특히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지방 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매우 약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경제개혁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치개혁의 내용은 무엇인가?

答 : 중앙정부의 경기과열 주장과 관련한 지방정부 내에서의 논쟁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음. 59개 도시의 시장들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에서 모든 시장들이 관할 지역내의 경기과열현상을 부정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혁개방이후 많은 부분의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정부에 양도됨으로써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음. 현재 지방정부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투자주체로 변모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다소 약화된 것이 사실임. 따라서, 중앙정부의 긴축조치를 지방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에 중앙정부는 정책적 수단 외에도 행정적인 수단도 병행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동일한 정책을 전국적으로 강제 실시할 경우 자칫 단순한 조치 차원으로 전락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시조정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행정부문의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현재 중국에서는 정부관리가 투자정책, 정책결정 등의 측면에서 잘못을 저지를 경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또한, 향후 경제발전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발전관을 이미 제시한 바 있는데, 이론적인 면에서의 큰 진전은 없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11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과학적 발전관은 지나치게 편중된 경제건설 우선주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지방관리를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GDP 성장률, 경제건설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 省 또는 懸간의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지방정부의 투자와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알아야 할 것임.

정치개혁은 반드시 점진적인 정치개혁이어야 함. 현재 중국은 하나의 딜레마에 처한 상태인바, 한편으로는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켜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권력의 강화가 필요한 측면도 존재하고 있음. 정치개혁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정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률·제도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두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첫째, 정부에 대한 감독·관리 문제의 경우, 중앙기율감독위원회 차원의 강화보다는 언론에 의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언론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다소 어려운 상태임. 또한, 지난 25년 동안 법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 문제임. 예를 들면, 토지배상과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 노동자들의 문제는 법적인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하고 있음.

問 : 江蘇省 鐵本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答 : 鐵本사건에 대한 처리는 두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었음. 첫째, 常州 지방관리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이는 당연한 조치임. 동 사안이 발생된 원인은 蘇州와 无錫과 같은 주변의 보다 발전된 지역을 따라잡기 위해서였음. 관리들에 대한 현재의 처벌 강도는 당의 내부 처벌에 그치고 있으나, 보다 엄한 처벌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함. 둘째, 기업 자체를 폐쇄조치하였는바, 이는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을 불량대출로 전환시켰고 이미 점용해 사용해온 토지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 수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사영기업의 재산권보호 문제 등이 향후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問 : 각 지방별 경제성장률을 종합하여 평균 성장률을 산정하면 중국의 전체 성장률로 이어져야 하나 통계수치를 보면 전혀 맞지 않고 있는데, 각 지방의 성장률과 중국전체 성장률과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인가?

答 : 국가통계국에서는 해당 연도 경제성장률을 통계할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하나는 지방에서 통보한 수치에 근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샘플링 조사를 통해 통계자료를 취득하는 것임. 이를 놓고 볼 때, 중앙정부의 통계와 지방정부의 통계가 불일치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성별 통계치에 의존하지 않고 별도의 작업을 통해 통계치를 구하기 때문임. 이로 인해 국외에서 1998년 경제성장률은 다소 높게, 2002년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게 발표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도 있음. 개인적으로는 통계국의 발표와 지방정부의 발표내용의 중간정도가 적절한 통계수치라고 판단됨.

問 : 2008년 이후 성장률 저하와 내수시장의 포화상태 등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 추세가 다소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對中 FDI의 증가 추이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 또한, 발표자는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신중한 낙관적 태도로 보고 있는데, 이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중국내 다수 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임. 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가 경제성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사회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答 : 중국에 대한 FDI는 지난 25년 동안 계속해서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 2008년까지의 지속적인 증가 등 특정기간을 산정하여 말할 수는 없으나, 향후 감소할 여지는 확실히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FDI의 감소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FDI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효과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임. 긍정적 효과로는 FDI 유입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발전은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기(長期) 자본을 얻게 되었고, 이는 중국의 채무구조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반면에, FDI 증가로 인해 가까운 시일내에 해외 송금에 따른 자금유출문제가 발생할 것임.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은 현재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국내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FDI의 감소여부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상태임.

개인적으로 향후 중국경제를 전망함에 있어서 신중한 낙관적 태도를 견지하는 이유는 중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기는 하나 과거 25년 동안 행운도 따라졌기 때문에 수차례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그러한 행운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임. 현재와 같은 양호한 성장추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가 냉철한 판단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 것임(***)